

# 세계 주요石油製品시장의 현황

## I. 유럽시장

유럽石油시장이 또다시 油價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초와 같이 油價인상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油價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겨울 북유럽을 강타한 寒波로 인한 수요의 폭등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고 그로인한 석유제품 가격은 대폭으로 하락, 그중에서도 地中海 시장에서의 제품가격은 세계 수준에서 볼때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정제업자들은 현재 마이너스로 변한 이익마진이 플러스로 바뀔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非需期인 봄철이 다가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가격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월의 寒波는 재고변화보다는 가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조업측면에서 보면 유럽의 겨울은 거의다 지나갔는데 石油제품 재고는 거의 전품목 충만한 상태이다. 그리고 가까운 北海 아프리카 및 地中海 등지로 부터 石油가 들어와 조만간 겨울철 제품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현 경제현실을 간파한 유럽의 많은 정제업자들은 재고관리 계획 및 정유공장의 폐쇄등으로 초과재고를 처분하고, 가동률 수준을 더 축소시키는 對案을 선택하고 있다. 최종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공급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정제업자들은 스파트 시장에서 싼값으로 구매해서 공급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제업자간의 잉여제품 구매물량 수준으로는 제품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데 별다른 효력이 없었다.

휘발유도 최근의 가격폭락 현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제업자들은 잃어버린 마진폭을 회복하기 위해 봄철의 휘발유 성수기를 기다리고 있다. 英國, 獨逸 및 기타 北歐 어느지역에도 수요는 아직도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지만, 無鉛보통휘발유를 비축하려 하고 있는 美國에서 유럽産 휘발유에 대해 상당한 인기가 있다. 휘발유의 미래선적 가격은 즉시 선적 가격보다 약간 높은데, 그것은 판매자들이 봄철의 가격인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테르담 시장에서 고급휘발유의 現物 가격은 지난 1월중순 최고 톤당 188달러에서 165달러로 떨어졌고 이탈리아에서는 192달러 수준에서 160달러로 무려 32달러나 떨어졌다. 나프타가격도 미래선적분이 즉시 선적분보다 약간 높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가스오일의 재고방출중 대부분은 지난 1월중순 寒波가 내습했을 때 2.3차 시설에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 현저히 나타났다. 정유공장 및 대규모 獨立系 저장회사의 재고변화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유럽전역에 가스오일이 초과공급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기상상태가 계속 온화해진다면 유통업자 및 소비자들이 소비한 만큼의 가스오일을 보충해야 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을 것이다. 獨逸, 프랑스 및 기타 지역의 現物 시장 가스오일에 대한 수요는 현재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매자들이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재고보충을 하려는 심산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産 가스오일의 先物거래 활동은 OPEC 고정가격제

〈표 - 1〉 유럽시장의 제품가격 동향

● 로테르담

〈단위 : \$/MT〉

	86. 11월	12	87년 1월	2	87. 2			
					1 주	2 주	3 주	4 주
나 프 타	125.52	130.09	162.07	154.50	157.40	156.40	155.60	148.60
고급휘발유	140.08	143.46	178.45	178.18	175.10	173.40	172.80	171.40
보통휘발유	126.31	138.83	163.43	157.93	159.10	160.00	158.00	154.60
젯 트 油	140.62	149.67	184.36	161.95	176.50	164.30	158.70	148.30
가스오일(0.3%)	121.24	127.16	170.09	147.63	159.40	151.30	144.30	135.50
重 油(1%)	86.63	97.09	124.20	106.33	116.10	105.10	103.50	100.60
重 油(3.5%)	72.28	79.02	104.45	86.13	88.90	83.50	86.60	85.50

● 地中海·이탈리아

〈단위 : \$/MT〉

	86. 11월	12	87. 1월	2	87. 2			
					1 주	2 주	3 주	4 주
나 프 타	114.42	119.78	159.59	150.13	153.80	151.20	148.90	146.60
고급휘발유	129.85	137.20	175.30	166.18	167.00	166.30	165.40	166.00
보통휘발유	123.21	134.93	161.61	152.95	157.10	152.90	150.60	151.20
젯 트 油	140.88	150.13	173.25	152.40	164.90	153.50	150.30	140.90
가스오일(0.3%)	117.54	124.23	165.02	144.05	154.80	148.70	142.10	130.60
重 油(1%)	80.46	90.00	116.18	102.88	114.00	102.60	99.00	95.90
重 油(3.5%)	67.23	74.04	104.75	84.55	92.80	83.40	81.00	81.00

● 유럽내륙시장

〈단위 : \$/B〉

	86. 6월	7	8	9	10	11	12	87. 1
나 프 타	13.50	10.75	13.50	14.00	13.75	14.50	15.25	18.50
고급휘발유	20.34	17.73	16.77	19.26	17.64	16.51	16.35	19.71
보통휘발유	18.77	15.75	14.87	17.05	15.07	14.22	14.17	17.69
가스오일(0.3%)	17.68	13.49	15.68	17.03	15.85	16.50	17.00	23.18
重 油(1%)	10.88	9.49	10.65	13.64	13.47	13.67	14.47	20.03
重 油(3.5%)	8.34	6.92	8.07	11.05	10.86	11.28	11.92	6.63

※ 벨기에, 프랑스, 獨逸, 이탈리아, 네덜란드, 英國 등의 평균가격

실지로 산발적인 거래행위는 있었지만 지난 2월중 비교적 한산했다. 先物거래에는 톤당 2달러의 프리미엄을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先物가격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現物거래에 대한 불확실성 및 低수요 때문이다. 런던의 IPE에서의 가스오일 先物계약은 앞으로 3개월동

안 같은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현 시장상황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4개월 이상 기간의 先物거래가 全無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유럽에서 寒波가 사라지고 겨울난방용 석유 수요가 떨

어짐에 따라 등유가격이 하락했는데 그 주요 이유는 가스 오일 수요가 줄어 블렌딩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地中海 지역에서 東方으로 등유의 이동이 뜸해지고 있는데 이것 역시 페르시아만 및 極東시장에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침체되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의 등유 가격은 지난 1월 중순경 톤당 186달러가 넘었으나 최근에 들어 135달러 수준으로 대폭 떨어졌다. 많은 정제업자들은 現物原油 대응으로 상압증류탑으로부터 바로 나온 重油나 기타 반제품을 투입하여 원가 절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直溜重油(Straight-run fuel oil)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地中海 지역에서 이러한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만 소련, 시리아, 이라크 등으로부터 약간의 물량이 공급되고 있을 따름이다. 소련産 直溜重油(원료로 사용가능)가격은 지난달 중순 기준 分解重油가격보다 톤당 18달러를 웃돌고 있다. 이것은 1월 중순 약 8달러 상회에 비하면 대폭 벌어진 수준이다.

지난 1월 내습한 강력한 寒波로 인한 산업 및 발전용 연료수요 증가에 부응키 위해 정제활동이 활발했다. 이로써 重質重油의 공급량은 풍부한 편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中東産 高유황 네트백 原油가 위탁정제되고 특히 정제업자들이 원유 처리량을 축소조정함에 따라 重油 공급량은 떨어져 수요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分解重油가격은 지난 1월의 최고수준에서 대폭 떨어졌다. 地中海시장에서 高유황重油는 1월의 톤당 128달러에서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이것은 스칸디나비아제국, 獨逸 등 유럽국가들의 重油수요가 대부분 충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II. 北美시장

美國 정제업자들은 이익면에서 다른 지역시장 정제업자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것은 美國에서의 現物제품 시장가격이 유럽 및 極東시장보다 그 하락폭이 완만했기 때문이다. 美國의 재고 비축수준이 점차 떨어지고 제품수입도 줄어들고 있으나 봄철에 가격을 회복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정유공장 가동률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빗나가고 原油수입도 전과 동일한 수준을 보임에 따라 급격히 가격회복은 헛된 희망으로 돼 버렸다. 美國의 정유공장 가동률은 현재 80%를 상회하고 있으나 原油수입이 지난해보다 100만B/D 가 높은 수준이 계속

되는한 가동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美國의 石油제품가격은 아직도 상당히 높아 現物시장에서 原油를 구매하는 정제업자들에게 약간의 마진을 확보해주고 있다. 이익 완충대가 너무 얇아 정유업자들에게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는데 특히 先物시장의 시세가 계속 약세를 예고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原油 및 난방유의 先物공급은 現物價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휘발유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先物가격은 앞으로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어 형성될 것이다. 先物거래량도 2월이후 많이 줄어들었다. 석유회사들은 국제석유가격 구조를 붕괴시킬 목적으로 高原價석유를 팔아치우고 低價시장에서 후에 다시 매입하는 매매시스템을 구축했다.

겨울철 寒波로 인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빛고 있는 난방유의 초과 공급량은 흡수되지 못했다. 現物가격이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체 제품의 재고는 1년전 수준보다 900만배럴이 높은 수준이다. 美國의 난방유 수입은 1년전의 17만5천B/D 보다 70%가 증가한 30만B/D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2월에 매주 수백만배럴이 방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美國의 난방유 초과 재고는 주로 美國의 北東部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美國의 기타 지역의 재고는 실제로 1년전 수준에 채 못미치고 있다. 現物가격은 지난 2월 배럴당 거의 3달러가 하락, 17.95달러 수준에 머물고 다행히 심한 寒波로 유럽에서 수요폭등이 있어 가격하락을 잠시 멈추게 하였으나 겨울 성수기가 끝난 지금 앞으로의 전망은 아주 불투명하다.

난방유 시장을 제외한 다른 제품시장은 가격하락 양상이 대폭적은 아니다. 그러나 인하압력은 다른 제품시장에서 역시 점증하는 추세에 있다. 휘발유의 평균가격은 지난 여름이후 커다란 변동폭을 보이지 않았으나 금년에 접어들면서 큰폭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안정페틴은 급속도로 흔들리기 시작, 2월초 갤런당 50센트에서 46센트로 떨어졌다. 거래업자들은 구매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려면 휘발유의 現物시장가격은 갤런당 40-43센트 범위에서 안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뉴욕항의 제1차 저장탱크에는 제품이 가득 채워져있고 제2차 저장탱크들도 정상보다 웃도는 수준의 제품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現物가격은 對日本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에 멕시코만의 가격보다 2배 이상 하락되었다.

정제업자들은 계절적 성수기가 도래한다 해도 그들이

〈표 - 2〉 北美지역의 제품가격 동향

● 美國 멕시코만

〈단위 : ¢/갤론〉

	86. 11월	12	87. 1월	2	87. 2월			
					1 주	2 주	3 주	4 주
무연휘발유	42.06	42.42	49.95	48.52	50.40	49.45	47.69	46.55
보통휘발유	41.06	41.39	49.19	47.96	49.90	48.92	47.13	45.90
가스오일(0.2%)	40.11	42.26	49.74	45.29	47.37	46.20	45.01	42.57
重油(0.5%)*	14.03	15.51	18.21	15.93	17.60	16.20	15.00	14.90
重油(0.7%)	13.28	14.72	18.06	15.66	17.50	15.92	14.60	14.62
重油(1.0%)	12.86	14.15	17.72	15.20	16.82	15.32	14.38	14.28
重油(3.0%)	11.03	11.83	15.39	14.55	16.00	14.60	13.75	13.85

\*주 : 重油의 단위는 \$/BBL

● 美國 서부해안

〈단위 : ¢/갤론〉

	86. 11월	12	87. 1월	2	87. 2월			
					1 주	2 주	3 주	4 주
무연휘발유	42.31	40.94	55.10	54.42	57.75	57.75	53.50	48.69
보통휘발유	41.12	40.38	53.52	53.42	56.75	56.75	52.50	47.69
경유(0.5%)	41.90	42.67	47.31	44.69	48.54	46.58	43.38	42.25
重油(380CST)*	9.92	11.20	14.47	13.31	14.33	13.86	12.58	12.46
重油(380CST)**	65.88	74.34	96.11	88.35	95.17	92.00	83.50	82.75

\*주 : BBL, \*\*: \$/MT임.

● 카리브해

〈단위 : ¢/갤론〉

	86. 11월	12	87. 1월	2	87. 2월			
					1 주	2 주	3 주	4 주
나프타	31.26	32.72	42.25	42.76	44.50	43.30	41.75	41.50
무연휘발유	39.53	42.39	47.66	45.98	47.50	46.90	45.00	44.50
보통휘발유	39.53	42.39	47.66	46.19	47.50	46.90	45.38	45.00
가스오일	38.86	41.56	49.34	46.35	48.25	46.90	45.25	45.00
重油(0.3%)*	14.38	16.07	20.86	17.25	20.10	17.51	16.04	15.36
“(1.0%)	12.79	14.50	17.76	15.77	17.45	15.93	15.06	14.65
“(2.2%)	11.52	12.69	16.05	14.62	15.60	14.80	14.25	13.80
“(2.8%)	11.15	12.27	15.52	14.03	15.25	14.15	13.50	13.20

\*주 : 重油의 단위는 \$/B임.

안고 있는 가격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業界의 몇몇 전문가들은 휘발유 재고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금년말경에 가변 수요공급간 균형이 깨져 시장은 약간 팽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제업자들과 시장 관계자들은 하락 추세에 있는 휘발유가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휘발유 생산이 둔화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이익마진은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휘발유 재고는 이미 1년전 수준을 110만

배럴이나 초과하고 있다. 2월 한달동안 휘발유 수입을 대폭 줄였지만 공급을 타이트하게 하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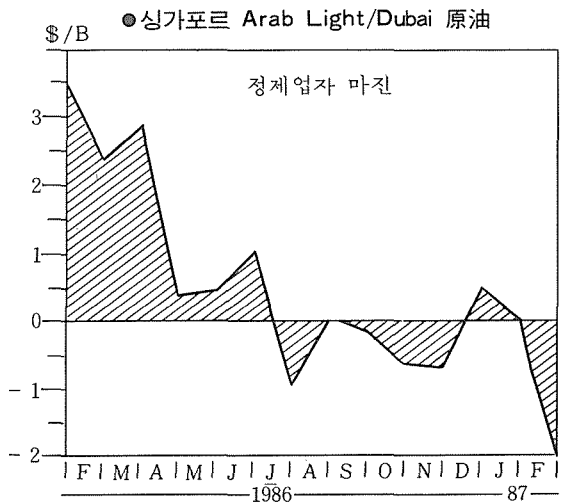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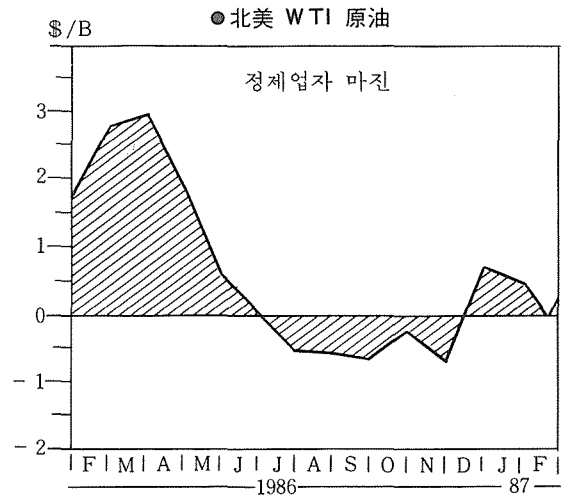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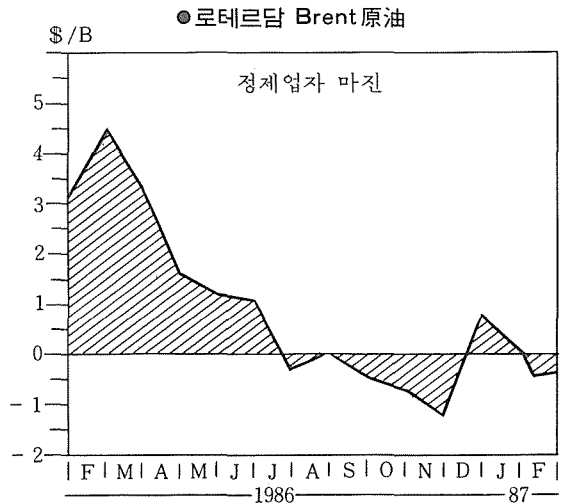
美國의 휘발유 수입감축정책은 전통적으로 美國에 無鉛휘발유를 공급하는 해외 공급업자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을 예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美國시장이 독특하게 요구하고 있는 옥탄가 및 기타 제품 규격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對美, 有鉛 보통 휘발유 수출업자들은 금년봄 美國에서의 새로운 판로를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美國의 국내 휘발유업자들이 시장에서 철수해야 할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美國회사들은 美國정부가 有鉛휘발유 제조에 공여하던 자금을 당초 예상보다 3배 빨리 이용해 이미 바닥이 났다. 한편 휘발유 상인들은 지난해에 이미 다양한 無鉛급휘발유 도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국내제조업자들은 치명타를 받게 되었다.

殘渣重油 가격에 대한 전망도 겨울성수기가 지난 지금 매우 혼탁하다고 할 수 있다. 重油의 공급초과 현상도 대폭적인 가동 축소가 없는한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殘渣重油가격은 지난 2월초 이래 배럴당 3달러가 하락, 저유황 重油의 경우 14.50달러, 고유황일 경우 13.50달러선에 맴돌고 있다. 더구나 유럽에서 重質重油(B-C油)의 수요가 폭등함으로써 저유황 및 고유황 重油간의 가격차가 금년초에 접어들면서 근소하게 좁혀졌다.

카리브해 지역의 정제업자에 따르면 석유제품가격의 하락으로 거래활동이 매우 침체됐다고 한다. 동지역의 저유황 重油의 가격은 배럴당 4.75달러나 대폭 하락했고 고유황의 경우 2.25달러나 떨어졌다. 다량의 原油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업자들은 카리브해 정제업자들에게 지난 수주동안 적극적인 매매교섭을 벌였으나, 제품가격이 침체되고 마진폭이 약한 原油 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 Ⅲ. 中東 및 極東시장

지난해 여름 이래 처음으로 수웨즈 以東 제품시장의 상황이 심각한 침체국면을 맞고 있다. 금년초 유럽시장에서 이상적으로 치달던 제품수요가 다시 떨어짐에 따라 中東産 석유제품은 또다시 동으로 향해 극동의 대부분의 제품시장을 공급과잉상태로 몰아부치고 있다. 수웨즈 以東의 석유제품시장은 原油시장보다 더욱 가격침체를 겪어, 세



〈표-3〉 中東 및 極東의 제품가격 동향

● 싱가포르

(단위 : S/B)

	86. 11월	12	87. 1월	2	87. 2월			
					1 주	2 주	3 주	4 주
나 프 타	14.78	14.71	18.00	17.47	18.38	17.78	17.26	16.45
고급휘발유	20.96	20.84	24.22	23.69	24.54	24.02	23.50	22.70
보통휘발유	20.96	20.84	24.22	23.69	24.54	24.02	23.50	22.70
젯 트 油	19.61	21.38	22.73	20.76	21.78	20.93	20.72	19.60
가스오일(0.5%)	16.25	17.20	20.89	20.96	21.39	21.02	21.00	20.42
重 油(0.3%)	11.86	13.43	16.27	17.68	17.44	17.83	17.98	17.47
重 油(3.5%)	10.11	11.98	16.14	13.60	15.50	13.84	12.98	12.09

● 日 本

(단위 : \$/B)

	86. 11월	12	87. 1월	2	87. 2월			
					1 주	2 주	3 주	4 주
휘 발 유	47.48	45.85	46.63	50.33	50.70	48.70	50.70	51.20
등 유	26.92	26.74	26.67	27.38	27.50	27.50	27.50	27.00
가스오일	24.96	25.45	26.18	26.18	26.25	25.50	26.25	26.70
重 油(0.3%)	19.58	22.78	24.84	26.75	27.00	26.00	27.00	27.00
重 油(3.0%)	18.60	19.81	21.31	24.63	25.00	23.00	25.00	25.50

● 中 東(Gulf)

(단위 : \$/B)

	86. 11월	12	87. 1월	2	87. 2월			
					1 주	2 주	3 주	4 주
나 프 타	13.11	13.19	16.86	16.43	17.08	16.69	16.23	15.71
고급휘발유	17.22	17.30	20.95	20.52	21.17	20.77	20.32	19.81
보통휘발유	15.54	15.58	19.25	18.82	19.47	19.07	18.62	18.11
젯 트 油	17.68	19.87	21.31	19.06	20.13	19.81	18.37	17.91
가스오일(0.5%)	13.99	15.41	19.97	19.21	20.03	19.15	19.11	18.54
重 油(3.5%)	8.58	10.24	14.88	12.00	13.69	12.47	11.07	10.77

로운 公式가격하에서 정제업자들이 원가절감을 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정제의 채산성이 악화된 데다 日本과 이란이 제품수입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 더욱 하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네트백 계약이 사라짐에 따라 싱가포르는 상당한 악영향을 받게 되었다. 싱가포르는 이미 86년말 이후 가동률을 20% 삭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정제활동도 자취

를 감출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OPEC의 公式가격제도 채택에 따라 OPEC 原油에의 의존도는 떨어지고 가까운 지방의 非OPEC석유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쿠웨이트, 이란등으로부터의 네트백 거래물량이 중단됨에 따라 中 央, 말레이시아 등의 인근 산유국들의 原油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中 質의 中東産 原油대신에 경질의 아시아지역 原油를 투입함에 따라 싱가포르의 정제업의

제품수율은 경질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싱가포르의 정제량은 지난 2월의 약 63만B/D 수준으로 떨어졌고, 3월에 또다시 3만B/D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2개 수출용 정유공장의 가동률을 20% 감축시켰지만 시장에는 가시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 페트로민과 日本과의 나프타계 약분쟁으로 인해 9만B/D 거래가 취소될지도 모른다. 사우디측의 일방적인 가격결정도 도입에 日本측 구매자들은 나프타수입을 사실상 중단했다. 한편 日本국내 제품 가격은 아시아지역시장의 인하추세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 결과, 국내공급부족 시장을 업고 상승무드를 타고 있다. 日本의 정제업자들은 가동률을 60%이하로 축소하여 정제이익의 개선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日本도 휘발유를 제외한 석유제품 수입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通産省은 정제업자들에게 3월말까지 130만배럴의 휘발유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공급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아울러 가동률 증가로 인해 가격에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했다. 따라서 강력한 시장여건으로 말미암아 정제업자들은 3월에 경질제품의 도매가격을 인상, 1987년초 原油비용의 증가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日本측 구매자들의 능란한 협상으로 싱가포르의 나프타 가격은 지난 1월중순 최고 배럴당 18.60달러 수준에서 서서히 인하되고 있다.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가격하락을 예상하여 3월까지 구매를 보류하고 있다.

中東의 나프타 물량의 감소 및 臺灣과 韓國으로부터의 수요증가로 가격하락 현상은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유 가격도 2월중에 대폭 하락했는데 그것은 이란이 저장 및 수송등의 문제로 싱가포르시장에서 사실상 철수

했기 때문이다. 또 이란—이라크 전쟁의 전략이 공중폭격에서 지상폭격으로 바뀐에 따라 이란의 겐트油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더우기 이란으로 수송된 물량이 다시 싱가포르로 되돌아옴에 따라 공급과잉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日本도 동절기 성수기가 지남에 따라 등유 수입량을 줄이고 있다. 등유시장이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가스오일의 수요는 대단히 높아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활발한 지역구매자로는 이란, 濠洲, 泰國, 베트남 및 臺灣등을 들 수 있다.

고유황 重油가격은 타제품에 비해 더욱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막대한 공급과잉현상 때문이다. 中東으로부터 많은 물량이 싱가포르에 들어옴에 따라 싱가포르의 고유황 重油의 재고는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했다. 따라서 고유황 重油의 가격은 지난 2월중에 톤당 100달러에서 80달러로 떨어졌다. 極東에서 고유황 重油를 가장 많이 제조하는 나라는 臺灣이다. 臺灣은 국내 또는 위탁정제를 통해 한달에 다섯카고를 수출하고 있다. 이 수출량중 많은 부분을 日本이 수입하는데 현재는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에 있어 곧 臺灣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美國 서해안 지역으로 부터 덤핑용 重油가 싱가포르 및 日本등의 구매자를 찾아 해상을 표류하고 있다.

저유황 重油 시장은 당분간 가격하락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만 같다. 그것은 인도네시아로 부터 공급량증대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래업자들은 3월중에 인도네시아의 수출물량이 10만B/D로 늘어나 가격을 끌어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日本측은 1/4분기의 수입쿼터량을 성실히 수행했으나 저유황 重油 도입량을 점차로 줄일 계획이므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 <PMI 3월 號>

**정직하고 겸허한 직무수행 자세를 확립하자**